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장성진(육군사관학교)

이 논문의 목적은 창설기 당-군관계의 원형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당-군관계의 원형이 현재까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 체제 형성에서 건당과 건군의 역사는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진행되었다. 1946년 2월 소련 군정의 구조적 영향력 아래 김일성은 군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기구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47년에는 당·정·군을 장악하고 자신의 체제를 형성하여 ‘민주기지’를 건설하였다. 1948년에는 소련 군정의 구조적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김일성은 안정된 정치체제를 계속 확장해나가면서 ‘국토완정’을 위한 한국전쟁을 준비해나갔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 형성된 김일성 체제는 이후에도 유지 및 강화되어 제도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결국, 북한군 창설기에 형성된 북한군의 특성은 ‘당의 군대’ 그리고 ‘김일성의 군대’였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주제어: 당-군관계, 김일성, 당의 군대, 김일성의 군대, 한국전쟁(6·25 전쟁), 북한군(조선인민군)

1. 서론

북한 체제의 형성과 군 창설에 대한 연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북한의 현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북한 체제 형성에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였는가는 북한을 이해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구조적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북한 체제는 소비에트화 과정의 산물이며 김일성은 그 구조의 산물로 단순한 행위자(꼭두각시)일 뿐이다. 반면 행위자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북한 체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행위자들이 북한의 내부적 조건을 활용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체제의 형성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를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아직까지도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창구가 된다.¹⁾

또한 체제의 수립 과정에서 군(軍)의 역할은 중요하였고, 그 중요성 때문에 건국의 과정에서 건당과 건군의 역사는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북한 통치권력의 핵심은 군이며, 또한 권력 구조의 핵심이 당-군관계라고 볼 수 있다.²⁾ 특히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향후 ‘군에 의한 쿠데타’라는 북한의 급변 사태 유형으로까지 발전했다. 하지만 이는 당보다 군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결론, 그리고 북한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 형성기 당-군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는 북한 체제 이해를 위한 단초가 된다.

북한 체제 형성의 주체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소련의 역할이 강조되었다.³⁾ 예를 들어, 서대숙은 소비에트화 과정에 대해 해방 후 3년

1) 북한이 체제 수립 이후 특유한 사회주의체제를 건지한 이유를 체제 수립 과정에 대한 접근으로 시도한 대표적 연구로는 김일평 외, 『북한 체제의 수립 과정(1945~1948)』(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참조.

2)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창군기에서 한국전쟁 직전까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3호(1998), 267~269쪽.

3) 북한 체제 형성에서 소비에트화로 규정하는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김창순, 한재

간의 소련군정을 소련군과 조선 혁명가들의 순수한 협력 시기(1945. 8~1946.1), 공산주의 혁명가를 우위에 두는 사이비 연립 시기(1946. 2~ 1948.1), 공산주의 정권수립기(1948.2~12)로 설정하였다. 최근에는 소련 자료의 활용으로 ‘외부적 규정력’에 의한 소련의 역할이 재강조되고 있다.⁴⁾ 반면, 북한 학계에서는 체제 수립 과정이 외세가 아닌 ‘자력혁명’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체제 형성 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 성과로 인해 북한의 내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⁵⁾ 단적으로 찰스 암스트롱(Charles K. Armstrong)은 북한 탄생의 기원은 외부로부터의 혁명보다는 당시 지역적 상황과 근세의 역사적 유산임을 강조하였다.⁶⁾ 최근에는 체제 형성 과정에 따라 형성 주체가 변화되었다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⁷⁾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축적으로 북한 체제 형성은 외부적 규정력과 북한 자체 내적 요인이 맞물려서 진행되었으며, 당시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가 시간의 변수에 따라 그 강조점이 변화

덕, 오영진, 한근조 등의 증언과 양호민, 서대숙,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 이정식, 에릭 반 리(Eric Van Lee), 김갑철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소비에트화 관련 연구사 정리는 류길재, “정권 형성기 북한 연구에 대한 일반평,” 『계간 북한연구』, 6권 1호(1995) 참조.

- 4) 이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전현수,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 강인구, 백학순, 이규태, 박명림 등이다. 이에 대한 연구 정리는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건당·건국·건군의 역사』(서울: 선인, 2003), 18~19쪽.
- 5) 대표적인 연구로는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스즈키 마사유키(鈴木雅之), 이종석, 류길재, 정해구, 김성보, 서동만, 기광서, 이주철 등이다. 이에 대한 연구 정리는 김광운, 위의 책, 23쪽.
- 6) 찰스 암스트롱, 『북조선 탄생』, 김연철·이정우 옮김(서울: 서해문집, 2006), 제1장 참조.
- 7)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1945~1960』(서울: 선인, 2008), 49쪽. 이주철은 1947년 2월 북조선인민회의를 거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소련군의 법적인 관여 형식은 없어졌다고 보았다. 즉 북한 정권기관의 발전 과정에 따라 소련군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했다고 볼 수 있다.⁸⁾

체제 수립의 주체뿐만 아니라 체제 형성 시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전통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1945년부터 1947년에 이르는 소비에트화 과정이 완수될 때 기본적인 체제 형성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⁹⁾ 김광운도 북한의 당·정·군에서 북한 권력 구조의 원형, 즉 김일성 지도체계가 1947년 3월경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⁰⁾ 또한 커밍스(Bruce Cumings) 역시 1940년대 후반 토착적인 정치체제를 발전시켰으며, 그 기본 구조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았다.¹¹⁾ 반면, 백학순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 기간은 파벌의 경쟁과 패권적 연합의 시기였으나 1958년 ‘8월중과사건’ 이후 단일지도체제와 1967년에 유일사상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¹²⁾ 서동만은 당내 분파가 제거된 1961년 제4차 당 대회를 전후하여 확립되었다고 보았다.¹³⁾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1961년에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되

8) 이와 같은 시각은 국제관계이론과 역사학적 접근의 접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구조와 행위자의 중요도가 역사적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자와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의 시각이기도 하다. 구성주의 시각에 의한 북한사 연구로는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 정체성, 구조』(과주: 한울, 2010) 참조.

9)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 기원과 원인(서울: 나남, 1996), 제4장, 제12장, 제13장; 류길재, “북한의 국가 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10)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31쪽.

11) 커밍스는 정권 형성 초기 북한이 단순한 소련의 위성국(Soviet satellite)이 아니었으며, 동시에 김일성 체제(Kimilsungist system)와 주체 이데올로기도 1960년대의 산물이 아니라 정권 형성 초기 1940대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II*(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91~349쪽 참조.

12)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제2부 파벌 경쟁과 패권적 연합(1945~1953), 제3부 ‘8월 중과사건’과 ‘반중과 투쟁’(1953~1958), 제4부 단일지도체제, 유일사상체제(1958~1994) 참조.

었지만, 최고사령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유격대국가’는 197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보았다.¹⁴⁾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수령제 정치체제가 형성된 시기는 1970년대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형성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¹⁵⁾ 이와 같이 체제 형성 시기는 1940년대 혹은 1960~1970년대로 보고 있다.

체제 형성기에 당-군관계에 대한 연구 경향은 어떠할까? 소비에트화 과정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에 의하면, 정권 수립을 이끈 힘은 소련의 군사력이었다.¹⁶⁾ 즉 소련의 군사력은 체제 수립에서 절대적 요소였다. 그리고 당-군관계의 통설은 당과 군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서동만은 한국전쟁 이전 북한군은 ‘로동당의 군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⁷⁾ 당시 군은 당의 군대이기 보다는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빨치산과의 부대였다는 것이다. 하루키 역시 보통의 공산주의 국가라면 군은 ‘당의 군대’로 존재하지만, 북한은 당과 군이 별개로 조직되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연안계와 소련계가 당을 장악하였다면, 김일성의 빨치산파가 군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다.¹⁸⁾ 최완규 역시 체제 형성기 군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밝혔지만, 형성 초기 당-군관계가 이원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¹⁹⁾ 반면, 김

13)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참조.

14)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서동만·남기정 옮김(서울: 돌베개, 2002), 제5장 『사회주의체제와 유격대국가의 성립』 참조. 특히 131쪽 참조.

15) 이에 대한 연구로는 최성, 김광웅, 김연철, 정우곤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 정리는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26쪽.

16)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제1권(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89~109쪽.

17)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289쪽.

18)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85쪽.

19)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 체제의 수립 과정, 1945~1948』(경

광운은 빨치산파에 의해 군뿐만 아니라 당도 장악하였다고 보았다.²⁰⁾ 유영구 역시 북한군의 성격은 한국전쟁 이전 창설 과정에서부터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그리고 ‘인민의 군대’였다고 보았다.²¹⁾ 이와 같이 한국전쟁 이전 당-군관계에 대한 상반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당-군관계의 특성은 체제 수립의 시기와도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체제 형성기 당-군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알브라이트(David E. Albright)는 권력 장악의 과정이 권력을 장악한 처음 20년간의 당-군관계에서 그 성격을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²²⁾ 아델만(Jonathan R. Adelman)은 알브라이트가 제시한 7개의 변수 중에서 권력 장악의 방법, 그리고 대외 관계가 군의 정치적 역할에 결정적이었다고 보았다. 펄뮤티(Amos Perlmutter)와 레오그란드(William M. Leogrande)도 권력 장악 방법 혹은 체제 형성기의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였다.²³⁾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체제 형성기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 김일성의 권력 장악 과정과 대외 관계 구조가 어떻게 군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비록 김일성 체제의 확립과

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139~176쪽.

20)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112쪽.

21)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11(1997), 67~71쪽. 그는 창건 초기의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인민의 군대’에서 ‘수령(김일성)의 군대’ 그리고 ‘후계자(김정일)의 군대’로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였고, 특히 북한군은 소련군의 정치위원회도를 채택한 문화부 설치 등을 통해 ‘당의 군대’였음을 밝혀냈다.

22) David Albright, “A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32 No. 4(July 1980), 5쪽;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168쪽에서 재인용.

23) 이를 토대로 중국형, 동유럽형, 소련형으로 제시했으며, 권력 장악과 대외 관계는 행위자와 구조의 관계로도 상치할 수 있다.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현대북한연구』, 제4권 제2호(2001), 118쪽.

제도화는 1960년대 이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²⁴⁾ 제도화가 완성 단계라면 그 제도의 기틀은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가장 큰 역사적 변곡점은 바로 체제의 형성기인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이다.²⁵⁾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역사적 전환점인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에 당-군관계의 원형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체제 형성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창설기 당-군관계의 원형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당-군관계의 원형이 현재까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47년 이전까지 어떻게 체제가 수립되고, 그 체제의 수립 과정에서의 소련군과 김일성, 그리고 군의 역할을 살펴본 후, 1947년 이후 건당과 건군 그리고 전쟁에 이르는 과정을 증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창설기 당-군관계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전쟁 이후 북한 체제가 제도화되는 시기까지 김일성 지배체제 강화의 측면에서 진행된 당과 군에 대한 김일성의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을 통해 건당과 건군의 역사는 상호 밀접한

24) 와다 하루키, 유영구, 서동만 등의 논문 참조.

25) 이 논문은 비교정치학인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개념과 접근을 활용하였다. 즉 행위자(김일성)가 무엇을 선호하였느냐보다는 특정 시공간(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북한 지역)의 특성이 제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체제 형성기 수립된 제도는 관성을 지니고 있기에(path-dependent, 경로 의존적) 이후 당-군관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목 대상은 역사적 전환점인데, 해방 이후 한국전쟁은 가장 큰 한반도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역적인 이론 구성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맥락의 차원에서 체제 형성과 당-군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해서는 Kathleen Thel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Sven Steinmo et al. eds., *Structuring Polit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참조.

상관관계 속에서 진행되었고, 북한 체제 형성에 구조와 행위자가 시대 흐름에 따라 모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당-군관계의 특성은 지속 강화 및 발전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소련군정과 김일성의 권력 장악(1945~194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Joseph Stalin)은 사회주의 모국 소련의 최고 지도자로 ‘수령 중의 수령’이었으며, 김일성과 마오쩌둥(毛澤東)은 스탈린의 지도적 지침을 받는 수령이었다.²⁶⁾ 스탈린의 제왕적 위치는 국제 공산주의 역사의 성공(1917년 볼셰비키 혁명, 1919년 국제공산당 결성)과 스탈린의 성격 그리고 소련 원조의 필요성이라는 구조적·현실적인 문제의 결과였다.²⁷⁾ 따라서 스탈린은 북한 체제 형성과 이후 한국전쟁을 총지휘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1) 스탈린의 지령과 소련군정

해방 당시 미소의 분할 점령에 의한 분단 구조는 각기 다른 체제 형성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었다. 이 구조적 요인은 알타회담 이후 동유럽의 사태 전개를 둘러싼 미소 간의 갈등이 점차 상승작용

26) 기광서, “한국전쟁 속의 스탈린,”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서울: 휴머니스트, 2010), 113쪽.

27) 이정식,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27~30쪽.

을 일으켰으며, 결국 미소에 의한 한반도 분할 점령은 잠재적인 냉전 체제의 소산임과 동시에 현재의 냉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²⁸⁾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이후 소련군 제1극동방면군 제25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였다. 당시 소련은 조선 점령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전승국 소련의 주요 관심사는 동유럽 및 중국의 공산화, 만주 문제 등이었으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준비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²⁹⁾ 그럼에도 스탈린은 9월 20일 다음과 같이 북한 지역에 대한 점령 방침 지령을 하달하였다.³⁰⁾

1. 북조선의 영역에서 소비에트나 그 밖의 소비에트 권력기관을 만들지 말고 소비에트적 질서를 도입하지 말 것.
2. 북조선의 모든 반일적 민주정당과 단체의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권력을 수립하는 것을 원조할 것.
3. 이와 관련하여 적군(赤軍)이 점령한 조선의 제 지역에서 반일적 민주적인 단체와 정당을 결성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그들의 활동을 원조할 것.
7. 북한의 민간 행정에 대한 지도는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에 수행할 것.

9월 20일 하달한 이 스탈린 지령은 북한 사회주의체제 형성에 절대

28) 류길재, “북한의 국가 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46쪽.

29) 서대숙, “소련 군정: 개설,” 『아시아문화』, 제8호(1992), 117쪽.

30) 1981년 러시아의 자료 공개를 마이니치신문(1993년 2월 26일)이 입수하여 발표한 내용이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72~73쪽에서 재인용; 또한 7항은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13쪽.

적인 것이었다.³¹⁾ 이와 같은 지령을 이행하여 북한 지역을 통치한 사람은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 의원 슈티코프(Terenti Fomitch Stykov)였다. 슈티코프는 북한의 체제 형성과 한국전쟁을 계속 지도하였으며, 또한 평양에 조직된 민정부(民政部) 로마넨코(Andrei A. Romanenko) 장관을 지휘하였다. 그가 작성한 『슈티코프 일기』는 당시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부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사태 전개에 깊게 개입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³²⁾ 즉 북한은 소련군사령부의 간접통치라는 ‘강력한 후견’하에 체제가 형성되었다. 9월 20일 지령에 의해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1947년에는 ‘임시’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북조선인민위원회가, 1948년에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소련군에 의한 체제 형성은 스탈린에 의한 소련의 외교-군사정책의 일반적 원칙이었다. 동구권에 이어 북한 지역에서도 소련 군대가 일본 통치 지역으로부터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에 따라 소련의 사회체제를 부과하였던 것이다.³³⁾ 결국 스탈린의 지령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소련 군대의 진

31) 왜 9월 20일 이와 같은 지령이 하달되었을까? 이정식에 의하면, 이는 런던회의의 결과 때문이었다. 한국전쟁 이전부터 미소의 갈등은 시작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에 대한 런던 회의에서 미소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런던 회의에서 스탈린은 맥아더 원수의 일본 통치에는 찬성했지만, 지중해 상선용 항구인 트리폴리타니아(Tripolitania)를 점유하여 해양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은 트리폴리타니아에 대한 국제 신탁통치를 주장하며 소련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9월 15일, 16일에 런던 회의가 결렬되고 이후 스탈린은 20일에 대한반도 정책을 바꾸었으며, 이후 10월 중순에는 대중국 정책까지 변화시키게 된다. 이정식, 『해방후사』, 35~46쪽.

32) 국사편찬위원회, 『슈티코프 일기, 1946~1948』, 해외사료총서 10(2004)

33) 1945년 4월 스탈린이 유고슬라비아의 파티잔(Partizan) 지도자 밀로반 지라스(Milovan Djilas)에게 “이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는 다르다. 한 지역을 점령하는 자는 항상 그에게 자기 자신의 체제를 부과한다. 각자는 그의 군대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자기의 체제를 도입한다. 다른 가능성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주는 북한 체제 형성의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구조적 측면에서 해방 이후 혼미했던 6개월간 진행된 소련군정은 김일성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를 조성해주었다.³⁴⁾ 초기 군정에서 소련군은 누구는 포섭하고 누구는 억압하는 수용과 배제, 억압과 포섭의 양면정책을 구사하였다.³⁵⁾ 이 양면정책은 당시 정책수행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³⁶⁾ 소련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행정10국은 “소련군 휘하에 설치”되어 “소련군 사령부의 명령과 지시를 수행”하는 기구였다. 소련군에 의한 통제는 각종 소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외무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로조프스키(Solomon Abramovich Lozovskii)가 총참모장 안토노프(Aleksei Konstantinovich Antonov)와 총정치국장 슈킨(Chkine)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임시인민위원회와 국(산업국, 농업국, 무역국, 재정국, 운수국, 통신국, 교육국, 보건국, 보안국)은 북조선 소련군사령부의 통제하여 활동”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³⁷⁾ 이와 같이 소련군 사령부는 행정10국을 구상·통제하였으며, 이후 중앙기구인 임시인민위원회의의 형성까지 주도하였다. 물론 함북 지역을 제외한 지역인민위원회의는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소련군은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북한의 ‘해방’국이며, ‘도외주는’ ‘조선의 유일한 우방국’이라고 선전하며, 북한 지역에 대한 질서를 유

언급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안정수, “동구 사회주의 실험의 전망,” 『소련·동구·중국·북한: 그 변화의 실상』(서울: 문우사, 1991), 74쪽.

34) 장준의, 『북한 인민군대사』(서울: 서문당, 1991), 27쪽.

35)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 93쪽.

36) 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47~59쪽.

37) TsAMO-A, Fond 19, Opic’ 266, Delo 277, 1945년 10월 17일 문서입수번호 5717; 정성임, 위의 글, 부록 1 참조.

지하였다. 특히 질서 유지를 위한 초기 점령업무는 소련군정과 각 도 및 시·군의 위수사령부가 담당하였다.³⁸⁾ 이와 같이 북한은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소련군이 주도한 행정10국과 자발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라는 정책수행기구를 통해 소련군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점진적으로 체제를 형성하였다. 즉 북한 지역 점령 당시 주둔한 약 4만 명의 소련군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³⁹⁾

북한 지역의 소비에트화 과정은 소련군의 점령에 의한 체제 형성이라는 보편성 외에도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북한 지역에는 반공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38선을 작전한계선으로 설정함에 따라 북한 지역 내 소련의 영향권 행사에 대해 미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또한 동구 공산권과 달리 공산당의 독주가 일찍 시작되었으며, 처음부터 정통성 문제로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는 한반도의 또 다른 구조적 배경인 일제 식민지 유산에 기인한다.⁴⁰⁾ 탈식민지사회인 북한에서 항일투쟁 경력만큼 중요한 정통성의 기반은 없었기 때문에,⁴¹⁾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력을 부각시켜 정통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 북한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주체사상을 내세워 소련의 영향력을 극소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즉 항일무장투쟁을 내세우

38)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 97쪽. 당시 핵심 인물로는 슈티코프(Terentii F. Shtykov),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 레베데프(Nikolai G. Lebedev), 로마네크(Andrei A. Romaneko), 이그나체프(Alexander M. Ignat'ev), 발라사노프(Gerasim M. Balasanov), 샨닌(Gergori I. Shanin) 등이다. 전현수는 이를 ‘경무사령부’로 번역하였다.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14쪽 참조.

39) U.S. Dep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12쪽;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 86쪽에서 재인용.

40) 북한 건설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식민지 유산에 대해서는 류길재, “북한의 국가 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제2장 참조.

41)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269쪽.

는 토착세력의 전통은 북한 체제 형성의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을 형성하였다.⁴²⁾ 따라서 북한의 토착적 요소가 어떻게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2) 인민위원회와 김일성의 권력 장악

체제 수립 과정에서 북한 내적인 요소는 인민위원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⁴³⁾ 인민위원회의 조직화는 해방과 더불어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로부터 착수되었다. 이 건준은 좌우세력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성격의 항구적인 합작체로 건설되지 못하고 인민공화국(인공) 수립으로 이어졌다. 인공 수립은 각 지방지부들이 ‘인민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통일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공과 건준의 수립은 정치세력 간의 연합이 정부의 형태를 보였으며, 광범위한 인민들이 이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또한 인민위원회는 지역적 색채를 지니며 형성되었다. 평안도는 기독교와 지주의 힘을 얻은 우익 민족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함경도는 소련군 진주와 일제하 적색농노조 운동 등으로 좌익의 영향력이 강했으며,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황해도에서는 좌우익 세력 간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렇듯 스탈린 지령 이전까지 북한 지역에서는 통일정부를 표방하거나, 지역별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스탈린 지령 이후 10월 초에는 북한 내 인민위원회를 조직화 및 중앙집권화하기 위

42)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은 북한 체제 형성에 절대적인 요소였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25~28쪽.

43) 류길재, “북한의 국가 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제3장 참조.

한 노력이 진행된다. 북한 전역의 다양한 지방인민위원회들은 1945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5도인민위원회 연합회의’를 통해 중앙집권적 통치기구를 수립하고, 평양에서 치스차코프(I.M. Chischakov)의 제안으로 농업생산과 식량성출 문제, 군수공장의 민수공장으로서의 개편, 금융재정 문제, 지방기구의 정비 및 통일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민위원회 명칭이 통일되고 면, 군, 시, 도 인민위원회의 피라미드 구조가 결정되었다.⁴⁴⁾ 또한 10월 10일 5도대회 이후 70여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별도로 모여 ‘서북5도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1945년 11월 말 이전에 북한 전역에 도·시·군·면까지 인민위원회 조직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1945년 10월 10일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에 이어서 11월 중순에 군당이 조직되고, 1946년 3월 10일쯤에는 면당이 조직된다.⁴⁵⁾ 결국 소련군사령부는 스탈린 지시 이후 지방인민위원회의 유기적 연계를 확보하였고, 이 인민위원회는 공산당 조직이 상호 연계해 조직되었다.

소련군 점령 지역의 중심지인 평양에서는 해방 이후 다양한 정체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였지만, 1945년 9월 허승경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유격대 집단이 평양에 등장하였고, 이 집단은 초기 활동에서부터 북한 지역에서 건국, 건당, 건군의 핵심을 자임하였다.⁴⁶⁾ 1945년 8월 20일 소련의 야영지에서 연설한 김일성

44) 『조선중앙년감』(1950년판), 196쪽;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61쪽에서 재인용.

45) 김석형 구술,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요!』, 이향규 녹취, 정리(서울: 선인, 2001), 138~139쪽. 김석형은 구술에서 ‘공산당분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김석형은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박헌영이 주도하는 서울중앙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46)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112쪽.

의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라는 연설문에 의하면, 항일유격대집단이 처음부터 빨치산 중심의 당과 정권기관 및 군대들을 조직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⁴⁷⁾ 물론, 김일성과 빨치산 세력은 초기 몇 달 동안 국내파 및 연안파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⁴⁸⁾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해 진주한 소련의 지원과 각 지방의 당 조직에 접근하여 자파세력을 강화해나간 그들의 노력 때문에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김일성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해나갈 수 있었다. 즉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유격대원들은 도당에서 일정한 활동 근거를 마련하여 시, 군, 그리고 공장 및 기업소 당 단체 및 당 조직을 결성해나가며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해나갔다.⁴⁹⁾ 1945년 연설문의 실제 여부를 떠나 해방 직후 북한 지역에서의 주도 세력은 1940년대 초반부터 소련과 연계되어 있었던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집단이었다.⁵⁰⁾ 단적으로 1945년 9월 말 22개소의 소련 위수사령부에는 제88여단 대원 55명이 배치되었고, 이들의 영향력은 면과 동까지 미쳤다.⁵¹⁾

인민위원회와 공산당 조직이 상호 연계된 이후 1946년 3월 5일경

47)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인민정권 건설에 대하여』, 제1권(조선노동당출판사, 1978), 51~69쪽;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112~113쪽. 이 사료는 20년 이후 공개된 점으로 보아 사료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김광운은 이미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소련 지도자들과 조선의 장래 문제에 논의와 합의가 있었기에 신국가 건설을 위한 포괄적 관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139쪽.

48)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제2권(서울: 돌베개, 1986), 399~486쪽 참조.

49)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141쪽.

50) 김광운, 위의 책, 142쪽.

51) 88여단 대원들은 위수사령관의 부관이나 보좌관 혹은 보안대원으로 활용되었다.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14~15쪽.

토지개혁 법령이 발표되었다.⁵²⁾ 토지개혁은 ‘모든 소작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급진적 개혁이었으며, 이는 소련 점령군의 원안이 개혁안의 토대가 되어 3월 말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공산당 북조선분국 선전부의 선전 대강에는 “토지개혁 …… 김일성 장군의 직접 지도 밑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토지개혁은 김일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단기간의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배경은 만주 해방구에서 일본군의 진주 이전 빠르게 농민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였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⁵³⁾ 또한 토지개혁이 단기간에 집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련군의 점령 및 지원과 1945년 11월 보안국을 통해 각 지방의 무장력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⁵⁴⁾ 이 토지개혁 이후 김일성과 공산당의 권위는 현저하게 높아졌다. 김일성은 토지개혁을 계기로 북한인민들에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인식되었다. 결국 김일성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통해 국가 기구를 장악할 수 있었다.⁵⁵⁾ 소련군정은 북한 내적 요소인 인민위원회를 조직화하였으며, 김일성은 이렇게 조직화된 인민위원회를 통해 토지개혁이 성공하자 일약 지도자의 위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후 당내에서 김일성은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초기부터 김일성 우상화와 개인숭배가 고취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⁵⁶⁾

52) 토지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는 김성보,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83~106쪽 참조. 김성보는 소련외무성의 무상몰수, 유상분배에 의한 토지사유화 방안과 조공분국 및 연해주군관구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국유화 방안이 대립되는 가운데, 북조선농민연맹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안이 결정되었다고 보았다.

53)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80~81쪽.

54)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47쪽.

55) 이주철, 위의 책, 50쪽.

1945년 9월 20일 스탈린 지령은 임시적 성격을 띤 국가기구와 당, 그리고 무장력을 건설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북조선 공산당의 책임비서로 당을 장악하였으며, 무장조직인 보안대를 장악할 수 있었다.⁵⁷⁾ 임시인민위원회 차원에서 북한은 당-국가체제의 골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⁵⁸⁾ 즉 김일성의 당·정·군에 대한 장악은 1946년 소련 군정의 구조적 영향력 아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3) 김일성의 정권 장악과 군의 역할

스탈린은 체제 형성에 군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레닌(Vladimir Il'ich Lenin)과 트로츠키(Leon Trotsky)가 세계에서 가장 큰 대규모의 정규군을 창설하였다면, 스탈린은 이를 끊임없이 증가시켰고, 소련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군대로 남게 되었다. 소련이 대규모의 군사력을 필요로 한 이유 중 하나는 군사력을 통해 공산주의체제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다.⁵⁹⁾ 실제로 소련군은 체

56) 5월 상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북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로 개칭하였으며, 연안계인 김창만은 “민주주의조선임시정부 수립을 앞두고 이 정부의 최고 지도자로 일성 동무를 투대”하였다. 7월 8일에는 김일성대학을 개설하였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82~83쪽. 김일성대학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이를 건설하였고, 공산당 중앙당 책임비서이며, 15개 성상을 갖다가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투쟁한 사람이 김일성이었으므로 마찰이 없었으며, 학교모금운동도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김석형 구술,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요』, 146쪽.

5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43쪽.

58)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238쪽.

59) 가브리엘 코로트코프(Gavrill Korotkov), 『김일성과 스탈린』, 이견주 옮김(서울: 동아일보사, 1992), 87쪽.

제 형성에 절대적 요소였다. 북한의 토지개혁 성공도 소련군 주둔의 강제력 때문에 가능하였다.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1945년 말부터 있었던 소작료 3·7제 투쟁 때문이며,⁶⁰⁾ 당시 면당으로 토지개혁을 주도했던 김석형의 구술에 의하면, 3·7제 시행으로 인해 농민이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또한 이로 인해 1946년에 토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3·7제를 시행할 수 있었던 강제력은 바로 소련군의 무장력에 기인하였다.⁶¹⁾ 이는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 명령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군 단위에 설치된 위수사령부의 무장력이었다.

김일성 역시 마오쩌둥과 스탈린처럼 군을 중시하였다. 김일성이 초기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그가 군대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⁶²⁾ 실제로 김일성은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무장병력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김일성은 다른 공산주의자에 비해 무장부대를 갖고 있었고, 이는 그에게 큰 자산이었다.⁶³⁾ 무력은 보안대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이 보안대는 무장력이 중앙 집중화된 산물이었다.⁶⁴⁾ 1945년 10월 21

60)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46쪽.

61) 이는 김석형의 구술에 잘 나타난다. “(그만큼 공산당이 힘이 셨어요?) 힘이 셨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안녕 질서를 흐트리면, 소련군 군정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녕 질서는 갖다가 소련군들이 책임졌거든요. 안녕 질서를 안 지키면 큰일 났지. 숨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7제 한다, 공포를 하니까, 거기에 순응했지요. 하나도 반발을 못했어요.” 김석형 구술, 『나는 조선로동당 원이요』, 144쪽.

62) 서대수,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주석 옮김(서울: 청계연구소, 1990), 66쪽.

63)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한국전쟁의 기원』, 김주환 옮김(서울: 청사, 1986), 279쪽;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141쪽.

64)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32~43쪽; Hq, FEC, HNK4, 8쪽;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중권(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23쪽.

일 소련 제25군사령관의 명령서를 통해 무장단체를 해산하였으며, 5도행정국하의 보안대만 유지되었다. 1945년 11월 새로운 무력인 조선의용군 압록강 지대 600여 명이 북한으로 입북하려고하자, 김일성의 권력 장악에 위협을 느낀 소련은 이를 저지하였다. 여기에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학생폭동사건’을 보안대가 진압하면서 김일성 권력 장악은 급진전된다. 이후 1945년의 입북 저지와 달리 1949년에는 조선의용군의 대규모 입북을 허용한다. 이는 북한 내에서 김일성이 무장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소련의 구상에 따라 초기 질서가 구축됨을 의미한다.⁶⁵⁾ 이렇듯 보안대는 치안을 담당하고 김일성의 정치권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무장력이었다.⁶⁶⁾ 이와 같이 김일성은 사회주의체제 형성에 강력한 무장력이 수반되는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논리를 따르며 권력을 장악하였다. 즉 초기부터 무장력의 통일과 권력의 집중화가 이루어졌다.⁶⁷⁾ 또한 강력한 무장력이 체제 형성의 근본이었던 것처럼 비치기도 하였다.

4) 민주기지론과 스탈린 지령: 대중 정당과 정규군 건설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지령이 북한 체제 수립의 근본적 밑그림을 제공하였다면, 1946년 7월의 스탈린 지령은 건당과 건군의 지침이 되었다. 1946년 7월 중순,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에 불려가 스탈린과 회견하였다. 당시 스탈린은 1946년 6월 말 제1차 미소공동위

65)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 129~131쪽.

66)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 (과주: 한울, 2006), 68쪽.

67)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 691쪽.

원회가 실패로 돌아간 뒤, 미국과의 협상에 의해 한반도에서 ‘소련에 우호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정책을 포기하고 우선 북한만의 사회주의화를 결심하였기 때문에⁶⁸⁾ 북한만의 사회주의체제 건설과 군 건설에 대한 구상을 갖게 되었다. 체제 건설을 위해 스탈린은 두 사람을 향해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새로운 당을 만들도록 제안하였다.⁶⁹⁾ 김석형의 구술에서처럼 “이 공산당이라는 것이 시기상조다. 그래서 대중적 정당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양당 합당이 진행되었다.⁷⁰⁾ 스탈린은 동유럽의 예를 염두에 두고 당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체제 건설을 위해서는 대중적 정당 건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중적 정당을 위한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 이전에 1946년 7월 22일 사회단체의 통일전선체인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민전)이 만들어졌다.⁷¹⁾ 합당 이후 북조선로동당의 당원 수는 급격히 늘어나 1947년 1월에는 56만 명이 되었다. 1945년 10월 북한 지역 공산당원은 1,000명 수준이었는데,⁷²⁾ 로동당 창설 이후 본격적인 당 건설이 이루어졌던 것이다.⁷³⁾ 이는 당시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당이 국가의

68) 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 연구,” 165~168쪽 참조;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70쪽에서 재인용.

69)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83~84쪽.

70) 김석형,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152쪽. 당시 공산당 강령 규약과 신민당 강령 규약의 유사성에도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 시 마찰이 있었지만, 당원 수가 많았던 공산당원이 각 동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올라갈 수 있었다.

71) 김일성의 ‘민족대동단결’을 위한 민전의 전략은 소련점령당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항일 빨치산 시절 김일성의 빨치산 경험에 의한 전략적 판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백학순, “북한의 국가형성에 있어서 김일성의 자율성 문제,” 『국제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1994), 396쪽.

72)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서울: 중앙일보사, 1993), 121쪽.

<표 1> 북로당 당원 증가 수

시기	1945.10	1945.12	1946.5	1946.7	1946.8	합당 직전	합당	1947.3	1948.1	1956.1
당원 수	1,000	7,000	43,000	100,000	160,000	276,000	366,000	650,000	725,562	1,164,945

자료: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69쪽.

중앙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당원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⁷⁴⁾ 이와 같이 북로당의 당원 확장은 토지개혁의 성공과 북로당이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⁷⁵⁾

김일성의 당 장악과 당원 확장정책은 이후 국가기구 장악으로도 이어졌다. 북조선인민위원회(1947.2.22)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보통 선거를 거친 법적 ‘최고집행기관’으로 성립되었다. 이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 22명 중 16명이 북로당원이었으며, 하부 조직인 당원은 63만 명으로 50%를 넘었다.⁷⁶⁾ 결국 당원 확장은 국가기구의 당세를 확장하기 위함이었고, 당원 확장 시 김일성은 “하부는 상부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소련공산당의 당 조직 원칙을 유지하면서 소수인의 과두정치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⁷⁷⁾ 특히 이와 같은 북로당의 당 조직 원칙은 모든 당원들에게 요구되었으며 김일성의 위상 강화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⁷⁸⁾ 또한 이와 같은 당 조직 원칙은 당원들의 중요

73)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84~85쪽.

74)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32쪽.

75) 이주철, 위의 책, 62쪽.

76)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424~427쪽.

77)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74~75쪽.

78) 김일성의 지도력 확보 원인은 소련군의 지원,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경력, 중앙 국가기구인 북임인위위원장, 토지개혁의 성공, 북로당 당원 확장, 당 조직에

교육 자료인 『당건설』 등에도 반영되었다.

결국, 1946년 7월 모스크바 비밀회담에서 내린 스탈린의 지령은 향후 2년간 소련군정의 북한 점령정책의 기초를 제시한 것이었다. 또한 이 맥락 속에서 김일성은 북한에 ‘민주기지’ 노선을 취할 수 있었다.⁷⁹⁾ 특히 7월 스탈린 지령에서는 북한에 ‘강력한 현대적 군대’를 건설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북한군 창설이 본격화되었다. 1946년 7월 8일 ‘보안간부학교’라는 군관학교를 설립했고, 정규군 창설을 위한 준비회의가 열렸다.⁸⁰⁾ 소련군은 1946년 말까지 보병과 포병으로 구성된 2개 정규 사단 편성을 목표로 군대를 건설하였다. 당시 제25군 소속 소련군 장교 470명의 고문단은 북한군 창설을 지도하여 북한 정규군 건설의 초석을 놓았다.⁸¹⁾ 그리고 8월 15일에는 군의 참모부로 발전될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출범하였다. 당시 대대부의 간부는 무정(연안파)을 제외하고는 김일성 빨치산 계열이었다. 이는 김일성이 정권 형성 초기부터 무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⁸²⁾ 또한 김석형의 구술에 의하면 1946년 6월에 설치된 보안간부훈련소는 “군대를 할 수 있는 기초”였으며, “항일유격대 사람들이 골간을 이루”어 “무장력은 하나여야 된다”는 의식을 지녔다고 한다.⁸³⁾ 실제로 새롭게 편성

대한 복종 원칙 등이 종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철, 위의 책, 76쪽.

79)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9~31쪽.

80)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572~573쪽.

81)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61~62쪽.

82)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당시 대대사령관은 최용건, 부사령관 겸 문화부사령관은 김일, 참모장은 안길, 포병사령관은 무정, 후방부사령관은 최홍일, 간부부장은 조훈, 통신부장은 박영순, 공병부장은 박영순, 공병부장은 황호립, 정보부장은 최원, 총사령부 총고문은 기병 소장 스미르노프(Smirnoff)였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고려원, 1990), 73쪽.

된 부대는 철저히 소련군 모델을 통해 통일된 방향으로 군사력 건설이 이루어졌다. 이는 1952년 김일성의 연설문에서도 드러나듯, 조선인민군은 소련군을 모델로 해서 조직되었고 소련이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⁸⁴⁾ 이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형성 이후인 5월 17일에는 내부적으로 ‘인민집단군’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당과 군 그리고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교육이 필수적이었다. 대중적 정당을 표방한 결과 당원 수가 확장되었고, 확장된 당원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 문제가 중시되었다. 특히 당 간부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절실한 과제였다. 1945년 12월 25일, 슈킨이 로조프스키에게 보낸 북조선 정세에 의하면 “북조선의 부르주아민주개혁”이 더디게 진행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경제 부흥과 민족요원 양성을 위해서는 북조선의 영토에 중앙권력기관을 수립하고 이를 조선민주주의주의의 수중에 넘기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⁸⁵⁾ 이는 정치적으로 ‘우호적 민족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학교와 조선인민족간부양성학교 운영으로 연결되었다.⁸⁶⁾ 당 간부 양성을 위해 평양노동정치학교를 당 간부 양성기지로 개조하여 1945년 1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⁸⁷⁾ 그리고 중앙당학교로부터 도당, 도·시·군 야간당학교 그리고 세포학습회로 이르

83) 김석형 구술,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요』, 149쪽.

84)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159쪽; 김일성, “인민군대를 강화하자,”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346, 358쪽.

85) 러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Fond 013, Opic' 7, Papka 4, Delo 46; 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 연구,” 부록6 참조.

86) 이에 대한 내용은 정성임, 위의 글, 128~133쪽.

87)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142쪽.

는 일련의 당 교육체계를 형성하였다.⁸⁸⁾ 당 간부뿐만 아니라 군 간부 양성교육도 진행되었다. 보안대가 조직되고 확대 개편되는 과정에서 군사장교와 정치간부를 훈련시키는 군 간부 학교인 평양학원이 창설(1945년 11월 창설, 1946년 2월 23일 개원)되었다.⁸⁹⁾ 평양학원도 평양노동정치학교에서처럼 정부 수립을 위한 인재양성소였다.

당 간부와 군 간부 교육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먼저 당 건설 과정에서 진행된 교육시스템을 군 정치교육 시스템에 접목하였다. 평양학원 정치반이 당 최고간부 양성기관인 북조선공산당중앙당 학교로 새출발(1946.6.1)하였고, 군사반은 보안간부훈련소와 통합하여 중앙보안간부학교(1946.6.7. 임시인위 결정)가 된 점은 간부 양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였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당학교의 주요 교재였던 『해방후조선』, 『당건설』 등은 군 정치훈련의 주교재로 발전한다. 또한 보안서 내에 문화부를 조직하고, 군 내에 문화부를 조직하듯 건당의 과정과 건군의 과정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며 발전하였다. 특히 1946년 조공진남포시위원회에서 당 간부 교육재료인 『당건설』은 이후 북조선로동당중앙당학교의 『당건설(강의 요강)』, 그리고 이어서 조선인민군 528군부대의 상학재료인 『당건설』로 발전하게 된다.⁹⁰⁾ 김일

88)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120쪽. 당시 도당학교의 교육과목은 국내외 정세, 사회발전사, 그리고 『해방 후 조선』이었다. 『해방 후 조선』은 교과서로 교육받은 첫 교재였다. 당시 김석형은 1946년 12월부터 1947년 2월까지 3개월 도당학교 생활을 하였으며, 도당학교 졸업 이후 보안서 내 문화부에 ‘정치분자’ 역할을 하였다. 김석형 구술,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요』, 187~197쪽.

89) 군 간부 양성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군 간부 양성 교육에 대한 고찰, 1945~50,” 『한국군사학논집』, 제67집 제3권(2012) 참조.

90) 조공 진남포시위원회, 『당건설』(1946); NARA RG242, SA2009, Box 7, Item 28; 북조선로동당중앙당학교, 『당건설(강의요강)』, RG242, SA2009, Box6, Item76; 조선인민군528군부대, 『당건설』, 상학재료(1949.12) 김성학 소장 자료 RG242, SA2010, Item 5/92. 『당건설』에 대한 연구 정리는 박명림, 『한국전쟁의

성의 당 사업 방법인 마오쩌둥식 대중 노선을 적용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양적으로 팽창하는 북한군 내부에 반영하여 군 사상 교양 방법인 정치훈련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1949년 『정치상학 교재』(종합판)였다.⁹¹⁾ 교육 내용에서도 당 간부 내용이 이후 군에 대한 정치훈련으로 발전하였고, 김일성 중심의 민족해방운동과 해방 후 건당과 건국의 정당성을 공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⁹²⁾ 이와 같이 인재 양성교육기관은 정치적으로 김일성 무장투쟁세력이 당 및 군을 장악하는 정치세력의 산실 역할을 하며 대중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요컨대 1946년 7월 스탈린 지령 이후 북한의 건국, 건당, 건군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 1947년 2월 김일성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의장이었고 북로당의 당원이 전체의 50%를 넘는 당세를 지니게 되었으며, 군은 치안 및 보안의 성격에서 정규군의 성격으로 변모하게 된다. 결국 1946년 말 당과 정부기관 내에서 결정적으로 우세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그룹은 김일성 ‘장군’과 그 일파였던 것이다.⁹³⁾ 즉 서동만의 지적대로 1947년 초에는 거대한 북조선로동당을 권력의 중심으로 하는 ‘당-국가체제’가 완성되었다.⁹⁴⁾ 이와 같이 해방 이후 초기부터 김일성은 당·정·군을 장악하며 자신의 체제를 형성하였다. 유격대 근거지처럼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기지’를 건설하였던 것이다.

발발과 기원』, 제2권, 733~735쪽 참조.

91) 장성진, “6·25전쟁 이전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제14권 제2호(2011), 86쪽.

92)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483쪽.

93)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권, 464쪽.

94)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373쪽.

3. 정부 수립과 ‘김일성의 군대’(1948~1950)

1948년에 접어들자 소련의 군정은 막바지에 이르게 된다. 1948년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의 보수성 및 정치적 후진성 때문에 남한의 서구식 민주주의보다는 북한에서 시행한 소련식 정치체제 방법(엘리트에 의한 통제, 경쟁의 극소화, 지도자의 결정 사항을 위한 군중 동원 등)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 결과 1948년 가을 무렵, 북한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고도로 조직되고 내부 단결도 잘 된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⁹⁵⁾ 김일성은 급속히 자신의 체제를 확립해갔으며, 남한과는 달리 안정된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안정된 정치체제 속에서 새로운 이질적 요소를 받아들이며 체제를 확장시키고, 동시에 한국전쟁을 준비해나간다.

1) 정부 수립: ‘조국전선’과 국토완정론

북조선로동당 창립 1주년째인 1947년 8월, 김일성은 북로당이 70만 당원을 갖는 ‘대중적 정당’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다.⁹⁶⁾ 그리고 1948년 3월에 열린 제2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오기섭 등 국내파 인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가했으며, 이는 김일성이 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그의 지지 세력을 분쇄하는 숙청의 한 전형을 보여주었다.⁹⁷⁾ 또한 1948년 8월 남북로동당의 합당(비공개)과 이후 남로당

95) 스킨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권, 484~485쪽.

96) 김일성,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로동당,” 『근로자』(1947.8), 27쪽;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3쪽.

97) 스킨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2권, 479~

인사에서도 외양적으로는 ‘통일전선’을 추구하는 듯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박헌영 세력 역시 무력화되었다. 그 결과 1948년 가을에는 박헌영을 위시한 강력한 경쟁자들은 이미 제2선으로 물러났다. 결국 스탈린식 공산체제의 특징상 공적인 위세와 사적인 권력을 장악한 주요 정치지도자인 김일성은 이제 특별한 재난만 없다면 실각하지 않을 정도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김일성은 스탈린 지령 이후 결성되었던 종래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을 1948년 6월 25일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으로 개편한다. 이후 남한의 지하당은 ‘조국전선’ 성명서에 근거해 소위 ‘7월 공세’를 개시하여 9월 20일까지 일련의 습격 활동과 태업을 전개했다.⁹⁸⁾ 1946년도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된 후 북조선공산당이 신민당과 통합된 것과 같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결성되고 나서 남북로동당이 통합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된다. 이때 남한 좌익세력이 독자성을 포기하고, 남북의 정치세력이 총결집하여 대한민국을 무력 해방하겠다는 노선이 내부적으로 굳혀지게 된다.⁹⁹⁾ 1947년도의 ‘민전’에 이어서 새로운 ‘조국전선’으로의 개편은 김일성을 최고점으로 하는 당 세력의 또 다른 확장이었고, 동시에 전쟁으로의 노정이기도 하였다.

1948년 9월 10일 김일성은 새롭게 수립된 정부의 8개 정강 중 첫 번째 항목은 ‘국토의 완정’이었고, 1949년 신년사에서 ‘국토의 완정’을 13번이나 사용하며 강조하였다.¹⁰⁰⁾ 분단된 사회에 체제를 건설

480쪽.

98) 스탈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위의 책, 494쪽.

99)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237쪽.

100)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권 결정과 발발(서울: 나남, 1996),

한 김일성은 이제 통일로 그 초점을 변화시켰다. 즉 민주기치론에 따라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자, 이제 국토완정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당시 국토완정을 위한 내부 결정에서 박헌영과 김일성의 대립과 갈등이 초래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¹⁰¹⁾ 하지만 합당 이후 남로당의 자율성은 전술적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만큼 북로당의 영향력이 더 컸다.¹⁰²⁾ 내부적으로 최용건이 전쟁을 반대하였을지라도,¹⁰³⁾ 김일성이 전쟁을 결정하고 박헌영과 최용건 모두 이를 추진하였다. 1949년 북한군의 군사력 건설과 38도선 일대의 군사적 충돌, 그리고 빨치산의 봉기는 모두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949년 3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스탈린-김일성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스탈린에게 김일성이 주도적으로 남침 승인을 요청하였고,¹⁰⁴⁾ 1949년 8월 제2차 웅진전투에서 슈티코프는 김일성의 의견대로 북한 전력의 우세함을 강조하며 김일성의 논리를 대변하기도 하였다.¹⁰⁵⁾ 당시 전쟁 결정 과정에서 김일성은 빨치산 활동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박헌영은 중요하게 판단하였다.¹⁰⁶⁾ 그리고 전면적인 공격이 제한되었던 1949년의 정세에서 스탈

83~88쪽.

- 101) 대표적인 연구로는 Robert Simmoms, *The Strained Alliance*(New York: The Free Press, 1975)와 김학준, 『한국전쟁』(서울: 박영사, 1989) 등이 있다.
- 102) 김남식, 『남로당연구』(돌베개, 1984), 404쪽.
- 103)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권, 7장에 의하면 북한 내부에서 전쟁을 반대한 이는 박헌영이 아니라 최용건이었다.
- 104) 스탈린과 북한 정부 대표단(단장 김일성)의 회담(1949년 3월 5일 자). 폰드45, 목록1, 문서346, 리스트 13-23, 46. A. V. 토르쿠노프(Anatory Vasilievich Torkunov),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구중서 옮김(서울: 에디터, 2003), 41~45쪽.
- 105) 모스크바로 보내는 슈티코프의 전보(1949년 8월 27일 자). 폰드3, 목록 65, 문서 775; A. V. 토르쿠노프(Anatory Vasilievich Torkunov), 위의 책, 71~77쪽.
- 106) 모스크바로 보내는 토크인의 전보(1949년 9월 14일 자). 폰드3, 목록65, 문서

린은 김일성에게 국경 충돌보다는 빨치산 활동을 증가시키면서 북한 군을 강화하도록 하였다.¹⁰⁷⁾ 빨치산 부대 운용의 측면에서 남로당 박헌영이 부대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한 빨치산 부대는 북한 정규전 부대와 이질적인 부대인 ‘유격전’형 부대처럼 비치기도 하였다.¹⁰⁸⁾ 그런데 김일성과 박헌영의 빨치산 부대에 대한 접근 방식과 운용 교리는 달랐을지라도,¹⁰⁹⁾ 모두 동일한 목적을 위해 빨치산 부대를 운용하였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1949년 7월 초 북한은 합당(남로당, 북로당)과 미군철수 직후에 ‘인민유격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직속 중앙당 14호실에 편성하여 빨치산 활동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초기 남로당계에 의한 빨치산 부대에 대한 명령은 단지 전술적 수준에 그쳤다. 이렇듯 제2전선을 형성하거나 정규 작전의 일환으로서 빨치산 부대를 운용한 실무자는 남로당계였지만, 이에 대한 명령과 지령은 김일성을 통해 내려졌다.¹¹⁰⁾ 빨치산 부대가 소지하였던 소책자인 『투사의 별』에서도 유격전 교리뿐만 아니라 남로당의 강령, 헌법, 세포활동, 당 건설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¹¹¹⁾ 결국,

837, 리스트 94-99; A. V. 토르쿠노프(Anatory Vasilievich Torkunov), 위의 책, 80~85쪽.

107)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1949년 9월 24일 자), 폰드3, 목로65, 문서776, 리스트30-32; A. V. 토르쿠노프(Anatory Vasilievich Torkunov), 위의 책, 94~96쪽.

108)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259~262쪽.

109) 운용 교리의 측면에서 박헌영은 남한 내 각 지구당 재건과 빨치산 활동에 큰 비중을 둔 반면, 김일성은 정규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비정규전 부대의 역할에 더 치중하였다. 양영조, “6·25전쟁 남침전후 북한 게릴라의 성격,” 『한국전쟁기 전쟁수행과 그 영향』(한국역사연구회, 2010), 10~14쪽.

110) 당시 북한문헌과 조선중앙년감에서는 전쟁 초기부터 김일성이 직접 빨치산 부대를 독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11) 『투사의 별』, RG242, SA2010, Item 133. 목차는 당원 생활준칙, 자유주의적

38도선 일대의 충돌과 남한 내부의 빨치산 활동 등은 모두 ‘조국전선’의 목적을 향한 김일성의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조선인민군 창설과 김일성의 군대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북한군)이 창설된다. 소련군은 북한군이 창건된 지 10개월 후인 1948년 말에 군사고문단을 잔류시킨 후 철수한다. 북한군은 내각 산하 민족보위성의 지휘, 통제를 받으면서도 ‘조국전선’의 산하기구인 조국보위위원회가 민간 차원의 군사조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민간 차원의 군사동원 및 군사훈련을 실행하였다.¹¹²⁾ ‘조국전선’으로 당의 합당이 이루어진 것처럼 북한군 역시 민족보위성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조국전선’과 연계되어 전쟁을 준비하였다.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력 건설에서 북한군은 기본적으로 소련군을 모델로 한 ‘정규군형’ 군대였다.¹¹³⁾ 소련의 영향으로 이념 및 정치 교육을 중시하였고 통합군적인 지휘 구조였으며, 소련고문단의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 소련군 교리를 적극 수용하였다. 특히 소련 군사고문은 북한군을 소련식 정규군 부대로 육성하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소련 군사고문은 북한 창군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련식 군사교리와 이념, 문화도 함께 이식했다.¹¹⁴⁾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직후에

행동배격 12훈, 남조선로동당의 강령, 자기비판 지침, 인민유격군의 구호, 인민군의 3대 규율, 인민군의 3대 각오, 인민군의 8항 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세포활동의 당면메모, ‘P건설’에 관한 교제요강이다.

112) 스키타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496쪽.

113)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259쪽.

114)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한국전

동유럽, 몽골, 중국에서 정규군 창설을 지원하였던 것처럼 군사고문 파견을 통해 현지 군 간부 양성을 포함한 군 창설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의 초대 고문단장 스미르노프 소장은 1946년 9월에 입북하여 당시 초급장교 양성, 부대 신설과 운영 등을 지원하며 최용건의 상대역을 수행하였다.¹¹⁵⁾ 결국 북한의 군 구조는 소련군을 모델로 확고히 정착되었으며, 동시에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마르크스-레닌 이즘에 입각해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혁명의 군대’라는 성격도 지니게 되었다.¹¹⁶⁾

북한군은 ‘인민의 군대’를 표방하였다. 1948년 2월 8일 창설 기념 연설에서 김일성은 “우리 조선인민은 언제 어디까지든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가 주인으로 되는 완전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되는 완전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자기의 손으로 통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와 대책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명하며 자기, 자주, 주인, 독립 등의 어휘를 사용하였다.¹¹⁷⁾ 즉 북한은 군을 소련에 의해 창설된 군대가 아닌 “조선인민이 만든 조선인민의 군대”라고 정의하면서 당의 군대가 아닌 ‘인민의 군대’임을 내세웠다. 이는 마치 ‘민전’을 내세우며 합당하고, 이어서 ‘조국전선’을 내세우며 합당하여 당의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또한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북조선인민군’이 아닌 통일정부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북한은 군이 ‘로동당의 군대’가 아닌 ‘통일정부 수립의 군대’인 것처럼

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2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45쪽.

115) 안승환, 위의 글, 364쪽.

116)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78쪽.

117)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 698쪽.

표방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창설기부터 북한군은 ‘당의 군대’였다. 북한군에 대한 당의 통제의 측면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북한군은 로동당보다 대중 단체인 ‘민청’이나 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전선’과의 관계가 중시되었으며, 군 내에 당 단체나 세포가 조직되지 않았기에 직접적인 당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서동만은 이와 같이 당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군에 대한 통제는 김일성을 정점으로 빨치산과에 의해 자기 완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당내에는 이질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군을 통제할 정도로 강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¹¹⁸⁾ 최완규 역시 김일성은 처음부터 당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을 통한 군의 지휘통제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추측하였다.¹¹⁹⁾ 결국 북한군은 당과 인민위원회나 정부 밖에서 자율적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당과 정부기구에 의한 공식적·제도적 통제가 아닌 군 내부의 자율적 통제였다는 것이다.¹²⁰⁾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당-군관계의 통설처럼 전쟁 이전 당-군관계가 이원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김일성이 당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에 의한 군 통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볼 수는 없다. 체제 형성 과정에서 살펴보았듯 군 역시 정부기구, 그리고 당과 함께 김일성 체제 수립의 한 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일성은 우선 군을 장악한 이후 당과 정부기구를 장악하기보다는 1946년경 ‘임시’로 체제 수립을 위해 당, 정부기구, 군의 원형을 형성하고, 이후 1947년 체제 수립의 토대를

118)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271~275쪽.

119)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170~175쪽.

120)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279쪽.

만들었고 이후 1948년에는 정부 수립과 군 창설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권 장악의 측면에서 남북로동당의 합당으로 당의 정파연합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박헌영 세력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¹²¹⁾ 또한 1949년 5월 27일 내각결정 제60호로 문화부중대장 신설에서 보듯 군에 대한 당의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¹²²⁾ 유영구의 주장처럼 북한군 창건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군의 근간이 된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등에서 소련의 정치위원(Political Commisar)제도를 채택하여 문화부 혹은 정치부를 설치하였으므로 군은 ‘당의 군대’였다.¹²³⁾ 학교기관에 설치된 문화부는 각 제대별로도 동일하게 설치되었다.¹²⁴⁾ 결국 1948년 이전에 김일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성공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¹²⁵⁾ 그 결과 북한군의 성

-
- 121) 스키타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2권, 482~484쪽.
- 12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 731쪽. 당시 내각결정은 “내각결정 제60호: 조선인민군대 내에 문화부 중대장 설치에 관하여”(1949년 5월 27일), RG242, Sa2009, Item 10/99 참조.
- 123)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70쪽.
- 124) 1950년 10월 21일 김일성은 군관학교와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 당 단체가 없기 때문에 군대 내 당 단체를 조직하여야 함을 연설하였으나, 제1군관학교에 편성된 정치, 후방, 군사, 포병 참모부의 모습은 사단의 군사, 문화, 포병, 후방부 사단장의 조직으로, 보병연대의 군사, 문화, 포병, 후방부 연대장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단직속부대의 문화부에도 민청지도원, 선전원 등의 편제를 통해 정치적 통제를 하고 있었다. 즉 군관학교와 유사한 편제조직을 통해 정치적 통제가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김일성전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54쪽; 육군본부, 『6·25사변 육군 전사』, 제1권(1952.3.30) 제1군관학교, 사단본부편성표, 사단직속부대 편성표, 보병연대 편성표 참조.
- 125)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강조는 이후로도 지속된다. 예를 들어 1992년 1월 1일

격은 어느 분야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대중 단체인 ‘조국전선’의 영향력을 받는 ‘통일전선의 군대’였으며, 또한 북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군대’가 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북한군의 속성은 ‘김일성의 군대’였다.

당-군관계의 복잡성과 이원화 논의는 북한군의 이질적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서동만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소련군을 모델로 한 ‘정규군형’ 군대였지만, 군 내부에 당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군사편제에 복잡한 갈등이 조성되었다고 추측하였다.¹²⁶⁾ 즉 그는 북한의 무력에 대해 정규군형 군대뿐만 아니라 국공내전에 참여하였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험을 공유한 ‘인민전쟁’형 군대와 남로당의 ‘유격전’형 군대의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¹²⁷⁾ 이 세 가지 이데올로기의 모습은 전쟁 이전 무력통일이라는 목표에 일치해나갔지만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서동만의 주장처럼 조선의용군의 입북이 이질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을까? 북한군 창설 이후 한국전쟁으로까지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조선의용군의 입북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1947년 초 북한 지역은 국공내전에서 중공군의 ‘배후지’ 역할을 하였고,¹²⁸⁾ 이로 인해 김일성의 요청으로 1949년에 조선의용군이 입북하게 된다. 조선의용군의 성격이 이질적이었는지, 아니면 군의 통일적 요소가 되었는데

김정일의 연설문에서 “전당, 전민, 전군을 당의 전투적구호를 관철”하자고 하였고, 1996년 8월 7일 로동신문에서도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해야 함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126)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259쪽.

127) 서동만, 위의 책, 259~262쪽.

128) 서동만, 위의 책, 255쪽; 이정식, 『해방후사』, 제2강 참조 당시 북한의 지원에 대해서는 김석형의 구술 참조.

지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해보자.

조선의용군은 소련군 교리를 수용하며 북한군의 통일적 요소가 되었다. 1947년에 북한은 팔로군의 반격 또는 공격을 위한 기지로 변했고 북한 지역의 팔로군 역시 소련군 장교들의 감독하에 훈련을 받게 된다.¹²⁹⁾ 그리고 1949년 4월 조·중회담에 따라 중공군 제166사단(방호산), 제164사단(김창덕), 그리고 독립 제15사단(전우)이 중국 각지의 조선의용군 약 5만 명이 1949년 7월부터 1950년 5월까지 북한 지역으로 입북하였다.¹³⁰⁾ 제166사는 1949년 7월 25일 신의주에 도착하여 소련장비로 무장하여 북한군 제6사단으로 재편되었으며, 제164사는 1949년 8월초 나남에 도착하여 북한군 제5사단으로 재편되었다. 1950년 국공내전이 종료된 시점에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추가 병력을 요청하였고, 3월 중순경 1만 2,000여 명은 김광협 소장의 지휘하에 북한군 제12사단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제4야전군 제47군 한인독립단은 북한군 제4사단 제18연대로 개편되었다. 또한 제6단의 1개 연대를 제1사단에 배속시켜 중국 참전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¹³¹⁾ 요컨대 제1, 4사단의 1개 연대와 제5, 6, 12사단은 대부분 동북의용군 출신이었다. 정규군 창설의 측면에서 그들의 실전 경험은 북한군 전투

129) 미군 보고에 의하면 “홍남에서는 팔로군들이 소련군 장교들의 감독하에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한다. ISNK-30, 5~6쪽(2/1-15/1947), 이정식, 위의 책, 88쪽에서 재인용.

130)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49.7.13), 외무부 옮김, 『소련의교문서』, 제3권(미간행), 26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권 전쟁의 배경과 원인(2004), 273쪽.

131) 제6사단 제14연대를 제1사단에 배치시켰다. 제1사단은 제14연대와 제2, 3연대로 편성되었다. 군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제21권 북한군포로 심문보고서(1950년 8월)(1996), 맥아더 아카이브에서 수집한 각 호수 및 쪽수에 따르면, 2호 79, 166쪽 참조.

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¹³²⁾ 대부분의 조선의용군 부대는 만주 지역에서 훈련 경험이 없었으며,¹³³⁾ 입북 이후 소련식 기초 훈련을 통해 정규군 부대로 정착했다.¹³⁴⁾ 당시 훈련 시에는 연대 단위로 최소한 3명 이상의 소련군사고문단이 자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³⁵⁾ 국공내전 참전 경험이 있었던 홍종원의 경우 전서 제13사단 제1대대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전쟁 이전 전투정치훈련계획은 모두 소련군 교리에 입각한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있다.¹³⁶⁾ 따라서 제5, 6, 12사단의 경우 국공내전의 정규전 경험보다는 비정규전의 경험에 치중되어 있었고, 북한군에게 이질적 요소이기보다는 2~4개월의 훈련 과정을 통해 소련식 교리에 의한 훈련으로 통일된 북한군으로 재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병사들은 조선로동당 소속으로 전당(轉黨)시키는 작업을 통해 당원이 되면서 조선화되었다.¹³⁷⁾ 따라서 소련군 교리로의

132) 돈화에서 6개월 훈련을 받고 남창 전투에서 예비 임무를 수행하며 신발, 배를 만들거나 산악 또는 도시 부대들을 공격했던 조선의용군도 있으나 독자적인 정규전 능력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창전투 예비로 참여했던 이 부대는 신의주에 7사단 재편(1950.3.27)되고, 원산(3.29)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20일 동안 혹은 2개월(1950.4.26~6.18) 훈련을 받으며, 이후 12사단으로 재편된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호 19, 20, 23, 54, 67, 81쪽 참조.

133) 제166사의 경우 만주에서의 훈련은 없었다고 한다. 위의 책, 1호 23쪽 참조.

134) 1948년 여름에 입조한 제5사단의 경우 신의주에서 1개월 반, 12사단의 경우 3개월 정도의 소련식 기초 훈련을 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호 44, 196쪽 참조.

135) 12사단(문서의 7사단) 3연대의 경우, 3명의 소련고문단이 자문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호 196쪽 참조.

136) 홍종원은 제3지소 제1대대 중대장으로 45세 대위로 중국 CCF 경력을 갖고 있다. 그가 작성한 전투훈련계획 문건과 소련군 교리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장성진,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연구,” 『군사』, 제83호(2012.6), 18~21쪽 참조.

137)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 719~720쪽.

통일 과정과 당원으로서의 개편·재편 과정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군에 대한 당의 통제에도, 북한군이 ‘당의 군대’라고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기인한다. 북한군 창설 시 ‘북조선인민군’이 아니라 전 한반도의 ‘조선인민군’이라고 상정한 이유는 통일 정부 이후의 군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었다. 노동당만의 군대라고는 할 수 없었고, 이런 이유로 북한군은 ‘혁명의 군대’ 혹은 ‘통일전선의 군대’를 표방해야 했다. 슈티코프가 평가한 것처럼 전쟁 이전 1949년의 북한은 정치권력기구의 권위가 계속 강화되어 인민대중의 정치의식이 고양되었다.¹³⁸⁾ 즉 북한의 최고 기관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었으며, 핵심 정치권력은 당원이 90만 명인 북한 최고 정당인 노동당이었다. 이 국가기구와 정당을 장악한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승인과 동의라는 국제 구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국토완정을 추구하였다. 그 국토완정의 첨병에 ‘김일성의 군대’가 있었다.

하지만 체제의 골간이 당보다 우선하는 ‘김일성의 군대’는 아니었다. 박명림은 1948년 이후 북한군을 당시 북한 체제의 특성인 ‘혁명적 동원체제’를 보여주는 ‘소우주’로 설명하였다.¹³⁹⁾ 북한군의 모습에서 북한 체제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 시도는 북한군이 당을 통제하는 핵 혹은 ‘골간’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군대가 김일성 권력 장악의 근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김일성과 빨치산파의 확대가 북한군이

138)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의 회답전보 “남북한의 정치·경제 상황의 특징에 대하여”(1949년 9월 15일 자), 폰드3, 목록65, 문서776, 리스트1-21, A. V. 토르크노프(Anatoly Vasilievich Torkunov),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90쪽.

139)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권, 제12장 「혁명적 동원체제의 구조」, 참조.

있고 북한군의 확대가 북한이라는 오류를 범하였다.¹⁴⁰⁾ 북한 체제의 역사적 기원이 항일무장투쟁이었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북한군의 기원이 항일무장투쟁으로 강조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 즉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군대의 형성이 이루어졌고, 당시 체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건설에 집중되었지만, 체제의 중심이 군대라고 볼 수 없다.

요컨대, 1948년 이후 북한군은 ‘당의 군대’였고, ‘통일전선의 군대’였으며, ‘혁명의 군대’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김일성의 군대’였다. 이는 김일성의 당, 정, 그리고 군에 대한 권력 장악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1946년도에서 1950년에 이르는 김일성의 권력 장악 과정은 원심적 방법이었다. 먼저 핵심을 장악한 이후 외곽을 장악하며 권력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이었고, 이를 위해 내적 응집력은 김일성 권력의 핵심이었다.¹⁴¹⁾ 또한 동시에 원심적 방법을 다차원적으로 공고화해나갔다. 1946년 그리고 1947년에 이어서 1948년과 전쟁에 이르는 과정 역시 원심적 권력을 다차원적으로 다시 공고화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김일성 체제는 체제 형성기 원심을 강화하고 외곽을 더욱 강화시켜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중의 동원, 정치권의 숙청, 그리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4.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 체제의 유지 및 강화

한국전쟁은 김일성 체제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였다.

140) 박명림, 위의 책, 699~700쪽.

141) 박명림, 위의 책, 263쪽.

초기 전쟁 실패의 책임과 증공군의 참전은 그에게 위기였지만, 오히려 김일성은 전쟁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화시켰다. 당시 지배체제의 강화는 전쟁 이전 자신의 체제를 형성하였을 때 경험이 재판되어 나타났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전쟁 이전 체제 형성기의 노하우는 반복되었고, 이를 통해 당·정·군의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로 강화해나갔다.

1) 한국전쟁과 김일성 체제의 강화

한국전쟁 시기 군에 대한 당의 통제는 강화된다. 서동만은 한국전쟁 시기는 북한의 당·군관계가 가장 급격하게 변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비로소 북한군이 ‘당의 군대’로 선언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⁴²⁾ 단적으로 남로당의 대중봉기전술을 취하던 빨치산 부대가 1950년 말에서 1951년 초에 당의 통제를 받는 당의 군대로 재편되었다. 또한 1950년 10월 21일 당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은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여 전투 능력을 높이고, 북한군을 질적으로 강화하며, 군 내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대 내 당 단체를 만들어 조직하였다.¹⁴³⁾ 결국 북한군 후퇴 시기에 당은 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쟁 기간 중에 군사위원회 제도의 신설, 문화부의 정치부로의 확대 개편 및 군내 당 조직 결성, 총정치국 설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¹⁴⁴⁾ 북한군이 당의 군

142)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58쪽.

143) 김일성, “인민군대 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마련할 데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의 결어”(1950년 10월 21일), 『김일성저작집』, 제 6권, 145~152쪽.

144)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대였음에도 이와 같이 당의 군 통제가 강화된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

북한 내부 문서에 의하면, 북한 지도부는 후퇴 시기 북한군의 가장 큰 문제를 기율의 붕괴와 사상적 이완으로 보았다. 특히 군과 당의 고위 직급에 있던 사람들조차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10월 초 당이 직접 군에 개입하여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비겁한 행동을 한 군인들에게 대한 당적 제재를 가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한다.¹⁴⁵⁾ 즉 당의 영도와 전투력 강화를 위해 총정치국을 설치하였다.¹⁴⁶⁾ 하지만 이는 전쟁 초기 패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김일성의 노력으로 보인다.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전선사령관 김책의 잘못된 판단과 전쟁 지휘로 인해 북한군의 낙동강선 주력부대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또한 전쟁 지도의 미흡으로 개전 초 북한은 국군의 주력을 포위섬멸하고 연속 타격하는 데 실패하였다. 결국 전쟁 초기 북한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김일성과 사단급 장성들의 전략 및 작전 지도 능력의 부족 때문이었다.¹⁴⁷⁾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혼란된 전략예비대가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군은 정신적으로 붕괴된 상태였으므로 군 간부 역시 패배의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김일성은 전쟁 초기 패전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였다. 1950년 10월 8일과 11월 7일 박헌영과 김일성의 논쟁 역시 전쟁에 대한 책임 문제가 초점이었다.¹⁴⁸⁾ 북한의 과오와 결점에 대한 대표적 회의였던 1950년 12월 조선로동당 제2기 제3차 전원회의(별오리회의)에서도 패전의 원인은 예

71쪽.

145)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97쪽.

146)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과주: 한울, 2003), 54쪽.

147)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91~95쪽.

148)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권, 280~281쪽.

비대 부족, 적 공군 대비 부족, 지휘와 정세 판단 미흡, 무기, 훈련, 군기 문제로 검토하였다. 즉 패배의식과 군기 문제의 이완으로 패전의 책임을 돌리면서 이로 인해 당의 군 통제를 강화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김일성식의 전쟁 책임에 대한 타인의 전기는 이후에도 계속 나타난다. 1952년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12.15~18)에서 남로당에 대한 숙청의 빌미를 형성하고, 한국전쟁 이후 제6차 전원회의(1953. 8.5~9)에서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에 대한 숙청이 바로 그것이다.¹⁴⁹⁾ 이렇듯 김일성은 전쟁의 책임을 각 정파의 간부들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나갔다.

당에 의한 군의 통제는 전쟁의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김일성의 지배체제 강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1950년 11월 중공군의 참전은 김일성에게 새로운 위기의식을 형성하였다. 즉 ‘다급한 전선 상황’에도 총정치국을 설치한 배경은 김일성이 중공군의 참전과 조중 연합사령부의 구성으로 북한 내부 단속을 통해 자신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작전지휘권 대신 북한군을 당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어적 장치로 총정치국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⁵⁰⁾ 결국, 김일성은 중공군의 참전 이후 군의 작전지휘권은 중국에 넘겨주더라도 북한군 내 강력한 당 조직을 설치하여 정치적·사상적 통제권은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김일성은 군 내에서 당의 영향력과 자신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한국전쟁 기간 중 김일성 지배체제 강화 노력은 당 조직을 통한

149) 서동만, “한국전쟁과 김일성,” 『서동만 저작집, 북조선 연구』(서울: 창비, 2010), 208~216쪽. 서동만은 남로당과 숙청을 북한 최초의 스탈린식 정치제 판국으로 보았다.

150)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한국전쟁 시기 북·중 갈등을 중심으로,” 『군사』, 제83호(2012), 37~38쪽.

군 통제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의 당원 확장에서도 나타난다. 후퇴 시기 상당수 당원이 당원증을 숨기거나 버리고 도주하였기에 당원 수가 줄었으며, 당 조직 책임자인 허가이는 당 조직 강화를 이유로 당원증 분실자를 처벌하였다. 하지만 당시 당원 수 60여만 명 중 징벌 대상이 약 30여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사태였다.¹⁵¹⁾ 1951년 11월 1일 김일성은 허가이의 당 조직 방침을 비판하고 당원 수를 늘리는 방침을 제기하였다. 1946년 당을 대중 정당으로 확대하기 위해 토지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민과 노동자를 당원으로 받아들인 것과 유사하게, 당 조직에 대한 강화보다는 당의 확장이 요구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의 군 통제를 빌미로 당 조직을 강화시켰음에도, 대중 정당으로의 당원 확장을 위해 허가이의 당 조직 강화 정책을 비판하게 된다.¹⁵²⁾ 이는 1946년 허가이에 대한 비판이 1951년도에 반복되어 나타났다. 당원 확장의 결과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군 내 입당자 수는 14만여 명에 달했다.¹⁵³⁾ 이 수치는 당시 입당자의 총수인 40만 명의 3분의 1 규모였으며, 병력 총수 28.4만 명의 2분의 1 규모였다. 이와 같은 ‘화선(火線)입당’은 전선에서 임무 완수로 입당할 수 있었기에 개인적인 영예에 해당하였다.¹⁵⁴⁾ 결국 군대 내 당원 수의 증가는 김일성

151)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대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72쪽.

152) 로동당 창립 때부터 ‘당박사’라고 불린 허가이는 조직 부문을 장악하여 당 건설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허가이의 당에 관한 사고방식은 노동자계급 ‘성분’ 비율을 중시하는 소련식 엘리트 중심의 전위정당이었지만, 김일성은 계급 성분보다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중시하는 대중 정당을 만들고자 했다. 서동만, “한국전쟁과 김일성,” 207쪽.

153) 군대 내 입당자 수에 대해서는 리권무, “영광스런 조선인민군”(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52쪽;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74쪽.

154) 화선입당은 김일성이 1950년 7월 13일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군사위원회에

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¹⁵⁵⁾ 이렇듯 김일성은 전쟁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강화 과정은 과거에 형성된 체제에서 당원을 확대하여 강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한국전쟁 기간 급속히 성장한 당과 군은 김일성의 확고한 권력기반이 되었다.¹⁵⁶⁾ 이후 1952년 12월 원수의 칭호가 제정되고, 1953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 5주년에 김일성은 최초의 원수가 되었다. 또한 1953년 5월부터는 정식 선집 형태인 『김일성선집』을 간행했다. 요컨대 김일성의 권력은 한국전쟁 과정을 통해 당, 정부, 그리고 군에서 1946년에서 1947년도로 강화되었던 것처럼 또 다시금 강화되고 공고화되었다.

2) 체제의 제도화와 원형의 유지 및 강화

전쟁 이전 형성된 김일성 체제의 원형은 전쟁 이후에도 그 원형을 유지한 가운데 더욱 유지 및 강화되었다. 전쟁 이후 1955년 말 북한 전체 인구 1,000만 명에 당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당원의 사회경제적 구성은 여전히 60% 이상이 농민이었으며, 절반 이상의 당원은 한국전쟁 이후 입당한 사람들이었다.¹⁵⁷⁾ 새로운 당원들은 전쟁 이

준 지시"에 잘 나타난다. 전투에서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군인들을 선발하여 당에 입당시켰다. 『김일성선집』, 제12권, 129쪽.

155) 화선입당의 청원 방법에 대해서는 김재욱, “조선인민군은 조국해방전쟁의 과정에서 더욱 단련·성장하여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무장력이 되었다.” 『로동신문』(1952년 2월 7일),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74쪽.

156) 서동만, “한국전쟁과 김일성,” 217쪽.

전 당원 확장 이후 당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당 학교 등의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면서 당사(黨史)와 통일전선전술에 대한 교육과 엄격한 사업규율로 당의 일군이 되었다. 이렇듯 당의 재건은 전쟁 이전 당원 확장과 그에 따른 교육체계를 통해 김일성의 체제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하였다.

1956년의 위기는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김일성이 당면했던 최대의 시련이었다.¹⁵⁷⁾ 그리고 1950년대 이전에 김일성 체제가 형성되었음에도 1956년까지 연립정부가 형성되었으며, 그 연립정부의 투쟁이 1956년 8월 전원회의(8.30~31)였던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¹⁵⁹⁾ 그런데 당시 북한이 주장하는 종파투쟁은 상호 모순되고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기초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언급대로 종파 문제로 숙청되었다기보다는 숙청의 명분으로 김일성이 종파주의를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8월 전원회의는 내부 권력투쟁이기보다는 외부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내부적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김일성의 절대적인 권위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⁶⁰⁾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yov)의 연설은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레닌주의적 집

157)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3권, 한홍구 옮김(서울: 돌베개, 1987), 588~589쪽.

158)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위의 책, 제7장 『강요된 행진』 참조.

159) 기존 연구로는 이종석, 『조선노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275~284쪽;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북한현대정치사』, 김광린 옮김(서울: 오름, 1995), 187~251쪽 참조. 최근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상세한 연구는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 정체성, 구조』, 제3부 ‘8월 종파사건’과 ‘반종파 투쟁’(1953~1958) 참조.

160)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3권, 581쪽.

체적 영도를 주장한 사회주의 모국 소련공산당의 발언은 김일성 중심의 지도체제에서 집체적 지도라는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대외적 위기였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중공업 우선 발전과 농업협동화에 대한 전후 복구 경제 노선의 갈등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당시 위기가 김일성을 전복시키겠다는 ‘궁정쿠데타’의 성격은 아니었다. 비록 미코얀(Mikoyan, 당시 소련 부수상)과 평떠화이(彭德懷)가 조선로동당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¹⁶¹⁾ 김일성 중심의 지도체제, 즉 스탈린식 체제에서 레닌식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라는 압력이었다. 하지만 스탈린식의 김일성 중심의 지도체제는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확고해졌고, 이후 1961년 제4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 정치체제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¹⁶²⁾ 이 제도의 원형과 기틀은 이미 한국전쟁 이전부터 형성되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50년대의 김일성 체제와 1970년대 김일성 체제는 어떻게 달랐을까? 1950년대 북한의 정치는 개인이 정권을 장악한 독재정치였으며, 이 독재정치는 대중조직 기술을 통해 동원체제를 갖춘 현대적 의미의 독재정치라고 할 수 있다.¹⁶³⁾ 그리고 1950년대에는 개념상 지도자와 당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1970년대에는 김일성은 곧 당이며 국가라는 유일체제를 형성한 전통적인 독재정치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는 김일성 개인의 권력이 유지 및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현대적인 독재정치에서 전통적인 독재정치 수준으로 회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과 정에서만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나타났다.

161)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위의 책, 643쪽.

162)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75쪽;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참조.

163)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3권, 701~702쪽.

한국전쟁 이후 북한군은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배양하고, 북한군의 전통에 대한 신화(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를 확립해나갔다. 김일성과 당에 대한 군대의 충성심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동시에 당의 정치적 통제도 강화되었다. 당의 정치적 통제에도 1958년 육군대학의 몇몇 교수들이 북한군은 ‘당의 군대’가 아니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군대’라고 말하면서 논쟁이 일어났다고 한다.¹⁶⁴⁾ 이는 전쟁 이전 북한군의 성격인 ‘통일전선의 군대’를 계속 주창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쟁 이전에서처럼 북한군의 목적은 이제 통일이 아니었다. 조국전선은 1956년 7월 2일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이어졌지만,¹⁶⁵⁾ 1959년 초반 북한의 통일전선 기관은 남로당에 대한 계속적 숙청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정치적 의미를 잃게 되었다. 즉 전쟁 이전 국토완정을 위한 ‘조국전선’과 ‘통일전선’의 의미는 이제 퇴색되었다. 왜냐하면 김일성의 정치적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58년 3월 8일 북한군 내 당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당과 군의 전면적 재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¹⁶⁶⁾ 기본적으로 북한군은 전쟁 이전부터 김일성의 영광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계승한 당의 군대, 그리고

164) 스키타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위의 책, 622~623쪽;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대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74쪽. 김일성은 1958년 3월 3~6일 열린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 등에서 인민군은 당의 군대가 아니라 통일전선의 군대라고 주장했던 김을규를 당의 영도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한 수정주의자라고 비판했다. 김정일 역시 ‘통일전선의 군대’라고 주장한 이를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의 죄행으로 언급하였다.

165) 스키타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3권, 612쪽.

166)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26호(1996), 174쪽. 제4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제8장에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조선로동당규약』(제4차 당 대회 개정) 참조; 서동만, 위의 글, 175~176쪽.

김일성의 군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 이전 북한군 정통성의 근간이었던 항일무장투쟁은 이제 김일성만의 항일빨치산무장투쟁으로 신화되면서 김일성의 지배 체제가 강화되었다. 요컨대 김일성은 당과 군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고, 가장 극단적인 단계의 스탈린 숭배와 동일 혹은 그 이상의 개인숭배가 진행되었다. 스탈린화에서 김일성의 소(小)스탈린화로 자신의 체제를 강화해나갔던 것이다.¹⁶⁷⁾

건당과 건국의 체제 형성기에 수립되었던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은 김정일 시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군은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라는 1차적인 성격으로부터 비롯되는 ‘당 정책의 집행자’이며 ‘당의 수호자’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¹⁶⁸⁾ 즉 군대는 당의 지도를 받으며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당의 도구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북한군을 ‘혁명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규정하였으며, 군은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군 내 당 조직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전쟁 이전 식민지 조건 아래 정통성의 배경이었던 항일무장투쟁은 북한의 허구적인 ‘건국신화’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북한군이 김일성 항일유격투쟁의 계승자라는 측면에서 당과 군은 일체화되었다. 이와 같이 체제 형성기 이래 형성된 북한군의 성격과 정치적 역할은 ‘수령제’라는 북한식 당-국가체제 속에서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시대 ‘군 중심의 위기 관리체제’로 인해 ‘선군정치’가 강조된 듯 보이지만, 이는 상징적 성격에 한정되며 체제 형성기 당과 군의 메커니즘은 변화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167) 이는 마치 명의 멸망 이후 중화사상에서 소중화사상으로 국치를 삼은 조선 후기의 모습과 유사하다. 스탈린 사후에도 스탈린식 정치체제를 모방한 김일성 체제는 지속 유지되었던 것이다.

168)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115~152쪽.

5. 결론: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북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북한이라는 체제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체제 형성의 과정에서 북한군은 체제 형성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군대뿐만 아니라 당, 그리고 국가기구 장악을 통해 김일성은 김일성 체제의 원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권력의 핵심적 요소는 북한군과 인민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가 아니라 조선공산당, 조선로동당 등의 당과 이를 주도하는 김일성이었으며 이는 변하지 않고 있다. 김일성의 단일지도체제와 유일지도체제가 제도적으로 완성된 시기는 1960~1970년대이지만, 북한 체제 역시 기본적으로 스탈린식 체제를 모델로 한 당-국가체제였으며,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그 원형이 형성되었다. 당시 형성된 김일성 체제의 원형이 한국전쟁 이후에는 유지 혹은 강화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체제 형성기 건당과 건군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과 의미를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북한 체제 형성에서 군의 역할과 중요성이다. 스탈린은 체제를 인식하는 도구로서 군을 인식하여 실행하였고, 북한 체제 형성기에도 이를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체제 형성 시 구조적 배경이었던 스탈린의 결정과 소련의 군정, 그리고 슈티코프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실제로 1946년과 1947년에 당·정·군을 장악하기 위한 김일성의 여정은 스탈린의 두 차례 결정적인 지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일성이 당과 정을 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력에 대한 독자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빨치산 유격대의 경험과 소련 군정, 북한 지역 내 보안국을 통한 무력의 장악은 김일성 체제 형성의 도구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48년 이후에는 소련군정의 영향력보다는 당시 당·정·군을 장악한 김일성 체제가 유지되면서 새로운 정치적 목적을 향한 김일성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전쟁 이전에는 당과 군이 이원화되어 있었다는 기존 연구의 통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당의 권력 장악 측면에서 한국전쟁 이전 체제 형성기에 김일성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연립정권을 수립했다고 보았으나, 오히려 해방 이후 짧은 시간에 김일성은 당과 정을 장악하였다. 그의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오기섭의 경우에서처럼 사전에 제거되었다. 그리고 종파투쟁에 의한 숙청은 김일성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의 정치적 책략이었다. 종파의 형성 때문에 숙청된 것이 아니라 숙청하기 위해 종파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즉 초기 국가건설 시기부터 김일성은 당과 정, 그리고 군을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군의 이질적 요소인 인민전쟁형 군대, 유격전형 군대의 모습 때문에 당시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어렵다고 보았으나, 실질적으로 군은 김일성의 빨치산 세력에 의해 가장 굳건하게 장악되었다. 그리고 국공내전 이후 입북된 조선의용군은 소련식 교리와 당의 정치훈련을 통해 통일되어 개편 및 재편되었고, 박헌영 지도하의 유격전 부대 역시 김일성의 명령, 지도와 당 건설의 지침에 따라 운용됨을 살펴보았다. 즉 북한군은 중국식 전쟁경험적 요소와 한반도 지형 여건에 소련식 교리가 첨가되어 복합적인 모습으로 조형되었지만, 창설 시기부터 그 성격은 ‘김일성의 군대’였다. 북한군의 초기 정치훈련 과정에서부터 건당의 역사,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역사를 강조한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당 건설의 과정은 이후 군 건설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시기를 검토하면 북한이 당과 국가기구보다 군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일성은 체제 형성 시 군보다 당을 우선하였다. 먼저 당원에 대한 확장 이후 군대의 병력 확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군사간부 양성보다 당 간부 양성이 선행되었다. 당원에 대한 확장 교육체계와 간부 교육체계는 그 효과성이 인정되었고, 당연히 군사력 건설 시 군 교육계획과 간부 교육체계에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당 사상 교양방법이 군 정치훈련 방법으로 정착하였다. 당 건설의 재판이 군 건설이었으며, 당 건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군사력 건설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당과 군의 연계성은 이후 한국전쟁 기간 ‘화선입당’ 시 당원 확장과 병력 확장을 동시에 진행시키며 김일성의 지배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즉 전쟁 이전 당원 확장이 후 군사력 건설이라는 건당·건군의 역사적 경험은 전쟁 기간 ‘화선입당’으로 당과 군의 건설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였으며, 건당과 건군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군은 당의 통제를 받지만, 동시에 군과 당은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넷째, 체제 형성기 김일성 체제의 원형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유지·강화·심화되었다. 비록 제도적으로는 1960년대의 단일지도체제, 1970년대의 유일지도체제로 완성되지만, 그 체제의 원형은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다. 당시 형성되었던 김일성 체제에서의 당과 군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당면 목표와 현실 인식에 따라 당과 군의 성격은 변화했던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북한군은 분명 전쟁 이전부터 ‘당의 군대’였지만, ‘인민의 군대’와 ‘통일전선의 군대’를 표방하였다. 이후 1960년대 육군대학에서 북한군이 ‘통일전선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한 간부가 숙청되었다. 이는 북한군의 성격이 1950년대에는 ‘당의 군대’가 아닌 ‘통일전선의 군대’였으

나, 이후 1960년대에는 ‘당의 군대’가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쟁 이전 김일성이 ‘국토완정’을 위해 ‘통일전선’의 명분을 내세웠기에 북한군이 ‘통일전선의 군대’였지만, 전쟁 이후에는 통일전선보다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로 체제를 강화하는 시기였기에 북한군은 ‘당의 군대’가 되었던 것이다. 전쟁 이전부터 김일성은 북한군을 ‘김일성의 군대’로 만들고자 하였고, 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모습도 북한군이 ‘강성대국건설의 주력군’으로 보이지만 단지 노선과 전략이며, 실상은 ‘김일성 군대’의 연장선인 ‘후계자의 군대’로서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당·정·군 관계의 역사적 형성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에 원형을 형성하였으며, 그 원형이 지속·유지되었다고 보았다.¹⁶⁹⁾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제도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이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변화하는 국내의 정세에 따라 형성된 제도가 어떻게 유지·강화·공고화되고, 혹은 지속 및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의 중앙 국가기관, 지방 정권기관 등의 국가기구에 대한 분석과 체제형성기 소련 및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와의 비교·분석 등에 대한 연구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10월 30일 / 수정: 11월 22일 / 채택: 11월 26일

169)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강조한 역사 자체 내 내재적 속성인 ‘우연성’과 함께 ‘경로 의존성’이라는 관성에 기인한다. 역사적 전환점에 형성된 체제 및 당·군 관계의 속성은 관성을 지니고 유지·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제도주의는 생성과 변화에 대한 가설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며, 이는 이 논문의 한계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 『조선중앙년감』(1950년판).
- 『김일성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김일성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전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조선로동당규약』(제4차 당 대회 개정).
- 『인민정권 건설에 대하여』, 제1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8).
- 『근로자』
- 『로동신문』
- 리권무, “영광스런 조선인민군”(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 조공 진남포시위원회, 『당건설』(1946), NARA RG242, SA2009, Box 7, Item 28.
- 북조선로동당중앙당학교, 『당건설(강의요강)』, SA2009, Box6, Item76.
- 조선인민군528군부대, 『당건설』 상학재료(1949.12) 김성학 소재 자료 RG242, SA2010, Item 5/92.
- 『투사의 별』, RG242, SA2010, Item 133.
- “내각결정 제60호: 조선인민군대 내에 문화부 중대장 설치에 관하여”(1949년 5월 27일) RG242, SA2009, Item 10/99.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가브리엘 코로트코프(Gavril Korotkov), 『김일성과 스탈린』, 이견주 옮김(서울: 동아일보사, 1992).
-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건당·건국·건군의 역사』(서울: 선인, 2003).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권 전쟁의 배경과 원인(2004).
- 국사편찬위원회, 『쉬티코프 일기, 1946~1948』, 해외사료총서 10(2004),

- _____, 『남북한관계사료집』, 제21권 북한군포로심문보고서(1950년 8월) (1996).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중권(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23쪽.
- 김남식, 『남로당연구』(돌베개, 1984).
- 김석형 구술,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오!』, 이향규 녹취, 정리(서울: 선인, 2001).
- 김일평 외, 『북한 체제의 수립 과정(1945~1948)』(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권 결정과 발발(서울: 나남, 1996).
- _____,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 기원과 원인(서울: 나남, 1996).
-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한국전쟁의 기원』, 김주환 옮김(서울: 청사, 1986), 279쪽.
-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 정체성, 구조』(파주: 한울, 2010) 참조
-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주석 옮김(서울: 청계연구소, 1990).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제2권, 한홍
구 옮김(서울: 돌베개, 1986).
- _____,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제3권, 한홍구 옮김(서울: 돌베개, 1987).
-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북한현대정치사』, 김광린 옮김(서울: 오름, 1995).
-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제1권(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 A. V. 토르쿠노프(Anatoly Vasilievich Torkunov),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
끼』, 구중서 옮김(서울: 에디터, 2003).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서동만·남기정 옮김(서울: 돌베개, 2002).
- 육군본부, 『6·25사변 육군 전사』, 제1권(1952.3.30).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파주: 한울, 2003).
- 이정식,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이종석, 『조선노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1945~1960』(서울: 선인, 2008).
-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서울: 서문당, 1991).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고려원, 1990).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서울: 중앙일보사, 1993).
찰스 암스트롱(Charles K. Armstrong), 『북조선 탄생』, 김연철·이정우 옮김(서울: 서해문집, 2006).

2) 논문

기광서, “한국전쟁 속의 스탈린,”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서울: 휴머니스트, 2010).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_____,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파주: 한울, 2006).

김성보,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류길재, “북한의 국가 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47”(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_____, “정권 형성기 북한 연구에 대한 일비평,” 『계간 북한연구』, 제6권 1호(1995).

백학순, “북한의 국가형성에 있어서 김일성의 자율성 문제,” 『국제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1994).

서대숙, “소련 군정: 개설,” 『아시아문화』, 제8호(1992).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창군기에서 한국전쟁 직전까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3호(1998).

_____,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26호(1996).

_____, “한국전쟁과 김일성,” 『서동만 저작집, 북조선 연구』(서울: 창비, 2010).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2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안정수, “동구 사회주의 실험의 전망,” 『소련·동구·중국·북한: 그 변화의 실상』(서울: 문우사, 1991).

양영조, “6·25전쟁 남침 전후 북한 게릴라의 성격,” 『한국전쟁기 전쟁수행과 그 영향』(한국역사연구회, 2010).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현대북한연구』, 제4권 제2호 (2001).
-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한국전쟁 시기 북·중 갈등을 중심으로,” 『군사』, 제83호(2012).
-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11(1997).
-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군 간부 양성 교육에 대한 고찰, 1945~50,” 『한국군 사학논집』, 제67집 제3권(2012).
- _____, “6·25전쟁 이전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제14권 제2호(2011).
- _____,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연구,” 『군사』, 제83호(2012.6).
-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1995).
- 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 체제의 수립 과정(1945~1948)』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3. 국외 자료

- Albright, David, “A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Civil-Militant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32, No. 4(July 1980).
- Cum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II*(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Simmoms, Robert, *The Strained Alliance*(New York: The Free Press, 1975).
- Thelen, Kathleen and Steinmo, Sve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Sven Steinmo et al. eds., *Structuring Polit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Analysis of the Origin and Meaning of the North Korean Party-army Relationship

Jang, Sungjin(Korea Military Academ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origin and meaning of the North Korean party-army relationship. North Korea's party-army relations is deeply related to each organizations formation process. In February 1946, North Korea kept the structure of party-army systems under the structural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intelligence, and Kim Il Sung came to dominate the Party, Government, and Army to a certain extent. Thereafter, in 1947, Kim Il Sung completed the centralization of the national system and domination of Party, Government, and Army, constructing a popular base for his rule. In 1948, the original system was strengthened, and Kim Il Sung fortified his system and prepared for the upcoming war. Afterwards, Kim Il Sung consolidated his system even further. 'Kim Il Sung's Army' and 'Party-ruled Army' were the system formed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Now, Kim Il Sung could control the army not with a national organization but

with his party. And Kim Il Sung's original system formed during army-party relation period persists to this day.

Keywords: party-army relationship, Kim Il Sung, party-rules army, Kim Il Sung's army, Korean War, NKPA